

자활후견기관 방문

- 격려사 -

오늘 이 사업(자활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그냥 돈만 준다고 그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속에서, 근로 속에서 일하는 보람도 찾고, 뭔가 새로운 희망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노동 속에서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일자리는 그냥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들마다 근로의 의욕과 능력의 수준이 다 다르다. 옛날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반론이 없어서 나에게서 숙제였다. 그리고 다른 의문은 '왜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공장에 와야 할까',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우리는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활사업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근로의 의욕과 능력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다 제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있는 일자리 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

능 하다' 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저 미스 매치라고 했는데, 단순히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부 훈련과정을 거쳐서 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다 몰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올해에는 장관하고 같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예산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적, 조직적 역량이 문제인가, 머리 속에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예산을 펴붓는다고 바로 이것이 뺨튀기되듯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지 구청장님과 교수님(김미혜 마포자활후견기관장)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2001년 2만명 수준에서 지금은 6만명 수준까지 왔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한꺼번에 해결해버리고 싶은데, 우리 보육도 해보면 돈만 많이 펴붓는다고 금방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지을 때 비료만 그냥 한 포대 갖다가 뿌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것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김미혜 단장이 '자활사업단마다 2, 3년씩 걸린다' 고 답변)

이 사업의 요체가 뭔지를 찾아내자. 사업이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는 요체가 뭐냐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에 대한 대가라든지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찾아내자. 그러니 '기초생활보장 받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나. 그러니 '기초생활 주는 것이나 받지, 가서 골머리 썩히고 할 것 뭐 있냐', 일 하다가도 신경질 나고 하는 그런 것을 질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내실을 다져갈 것인가, 이런 것을 따로 우리 정책실에서 테스크포스 하나 만들어서 파고들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과 당장 부닥쳐 있는 의료보호라든지 소위 차상위계층의 탈출과 충돌되는 그 지점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한번 해나가자